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3. 2. (금)	담당부서	철강화학과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280) 장성길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최원엽 사무관(044-203-4285) 이디도 사무관(044-203-5656)

트럼프 대통령, 모든 대미(對美)철강재 수출국가에 대해 25% 일괄 관세 부과 언급

-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 가능 -
- 미국의 최종 결정전까지 대미(對美) 현장지원 활동 적극 추진 -

□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3. 2.(금) 01:00 (현지시간 3.1(목) 11:00),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**무역확장법 232조**에 따라 **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% 관세를 일괄 부과**하는 안을 언급했다.

○ 이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중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.

< 그간 경과 >

- 미 상무부,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, 철강 수입안보 영향조사 실시('17.4.19)
- 미 상무부, 상기 조사보고서 백악관 제출('18.1.11)
- 조사보고서 및 3가지 권고안 공개(2.16)
  - 1안: 모든 국가 대상으로 최소 24% 관세 부과
  - 2안: 12개국(한국, 중국, 베트남, 등) 대상으로 최소 53% 관세 부과, 여타국은 17년 대미 수출규모로 쿼터 부여
  - 3안: 모든 국가 대상으로 17년 대미 수출의 63% 할당(쿼터) 설정
- 트럼프 대통령, 글로벌 25% 관세 부과안 언급(3.1)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아침 **백운규 장관 주재로 통상차관보, 산업혁신성장실장,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대책회의**를 열고,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5% 관세 부과시 **우리 철강 수출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책을 논의**했다

○ 2. 25.부터 방미중에 있는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**게리 콘** (Gary Cohn)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(NEC) 의장, **윌버 로스** (Wilbur Ross) 상무부 장관 및 의회 주요 인사 등을 접촉하여 **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**하고,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도록 미국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,

○ **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대미(對美) 현장지원활동 활동을 적극 추진**할 계획이다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최원엽 사무관(☎ 044-203-428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